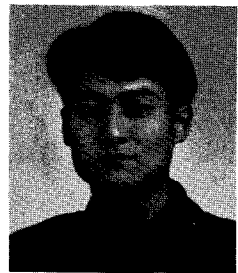


유통질서 생산자가 직접 정비해야 한다

- 시찰일시 : 1991. 7. 15~20일
- 시찰지역 : 일본 동경, 사이다마현, 군마현
- 시찰내용 : 채란농장, 유통, 가공산업



최 우 영
삼우농장

I. 문제제기

지난 5박 6일 동안 필자는 일본 양계장을 견학하고 돌아왔다. 이 기회를 통하여 한국의 양계업(채란)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를 나름대로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얻은 경험을 문서로 작성하므로 해서 자그마한 깨달음이 양계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기'식의 아둔한 발상의 나열일지는 몰라도 끝까지 읽어 주는 아량과 애정이 담긴 아낌없는 비판을 바란다. 그리고 실제로 현실화하는데 있어 간과하고 있는 문제점들의 지적은 이 글이 처음부터 완결적이지 않다는데 그

원인이 있으며(보완하여 쓸 수 있는) 그런대로 문제제기나마 제대로 되고 있다는 평가만 나와도 이 글은 그 목적을 다하는 것임을 밝혀둔다.

한국의 양계산업이 그동안 당면해온 어려운 점들은 크게 보아 두 가지 정도로 생각된다. 첫째는 정부의 반농민적 정책인데, 양계업을 식량안보의 차원에서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보다는 발전을 억압하고 통제해 왔다는 것이다. 그 예로 계분을 오염물질로 분류하여 비료화하는 것을 방해해온 것과 불공정 거래행위(상인의)에 대한 불간섭 등이다. 이것은 한개 농가 내지는 몇개의 농가가 힘을 합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전체 양계인이 힘을 합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 글에서는 논외로 하

겠다.

둘째로 상인들의 농간에 의한 유통질서의 혼란이다. 이것은 양계인들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통질서의 혼란이 마치 양계인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많은 양계인들이 이러한 책임을 대균업자에게서 찾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오히려 개별 양계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무조직성(통합의 구심이 없다는 의미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단합된 힘으로 상인들을 무력화시키고 있지 못하다는 것에서 한 원인을 찾고, 상인들의 단결된 힘에서 나머지 다른 원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따라서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이러한 문제 속에서 양계인들이 주도권을 장악하는데 실패한 것에서 그 문제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단순히 교과서적으로만 해결이 안되는 문제이기에 골머리를 썩히는 문제로 계속 남아 있지만, 필자는 이번 일본방문을 통하여 이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결방안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본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한정지었다.

이것은 크게 가공산업과 유통산업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 작게는 개별농장단위와 다수농장단위에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 이러한 분류는 서술의 편의에 따른 것이며, 결코 따로 떼어서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 따라서 A안에서 설명된 것 중에 B안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은 생략했다.

II. 문제검토

1. 가공산업

그동안 양계인들은 가공하면 마치 돈많은 자본가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 왔다. 그러나 필자는 이번 방문을 통하여 그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이며, 누구나 소재만 좋다면 적은 자본으로도 가공산

업에 뛰어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확신이 뒷받침되려면 사료의 자가배합이 전제로 되어야 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산물을 상품화하려면 다른 농장의 상품과 다른 무엇(유기농법이라든지)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열쇠는 사료에 있다는 생각에서이다. 자가배합이 개별농장단위에서 힘든 점이 있다면 공동구매의 형태로라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안된다. 그리고 직립식계사를 지음으로 해서 사육수수를 늘린다면(뒤에서 근거를 설명) 개별농장단위에서도 어느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전제로 하여 개별농장에서 할 수 있는 것과 다수농장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A안 : 개별농장단위

(1) 준비과정

이번 방문에서도 나타났듯이 직립식계사 한 동의 사육수수가 우리 농장의 전체 사육수수보다도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여러가지 원인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가장 커다란 원인은 판로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가공산업을 생각한다면 기존의 계사를 폐기하고 신계사를 짓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렇게 하므로 해서 기존 양계장 부지를 활용한다고 했을 때 공장부지를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품목과 필요한 부지와 자금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전계획이 서면 바로 실행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2) 실행

기존 양계장의 수수를 줄이면서 한쪽에는 직립식계사를 짓는다. 직립식계사가 완성되면 이전의 수수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육을 계속 하고, 다른 곳에는 부대시설[집하장, 사료배합공장, 계분

처리장(이 글에서는 계분의 활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공장, 사무실 등]을 건설한다. 총공사기간을 2~3년 정도로 잡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리고 일의 진척정도에 따라 판로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

(3) 예상되는 어려움

첫째, 기술의 축적이 없으므로 기술이전의 문제에서 타공장(예, 일본농장)과의 원활한 협조가 필요하다(예, 로얄티지급 등).

둘째, 규모가 작으므로 해서 상품화한다고 했을 때 물량조달에 어려움이 있다.

셋째, 전문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

넷째, 순수한 계란공급이 줄어들게 되어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에 계란을 구입하게 된다.

(4) 기대되는 성과

첫째, 현재와 같은 상인과의 마찰을 피할 수 있다.

둘째, 농장의 인력을 기술자와 단순노동자로 분류하여 기술자의 장기취업을 보장하고, 노동강도를 줄이므로(자동화) 인력수급을 안정시킬 수 있다.

셋째, 소비자들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무공해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제품에 대한 신뢰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보다 싸게 물건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5) 총괄

가공산업을 한다고 해서 그동안의 형태, 즉 계란의 형태로 판매하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것은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회원에 대하여서는 그대로 파는 형식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 안은 개별농장단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량의 공급이 제한되어 소비자가 한정될 수 밖에 없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안은 다른 양계인과 상관없이 독자적

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실행해 옮길 수 있는 기동성이 있다. 그리고 자본의 투하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개별사업가에서 주식회사(가족주주 등)의 형태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B안 : 다수농장단위

(1) 준비과정

가공산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양계인들을 모색한다. 기본적인 의의를 공유하면 기존의 계사부지와는 상관없는 공장터를 공동으로 마련한다.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면 현재의 공동집하장 부지와 부대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것과 동시에 생산품목과 공장규모를 결정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출자금을 조절하고 주식회사를 설립한다. 또한 각 개인의 양계장 시설의 개량과 확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되어야 한다.

(2) 실행

A안에서와 마찬가지로 각 양계장의 직립식계사 설치에 들어가고, 동시에 공장건설을 시작한다. 계사와 공장을 동시에 짓기 때문에 자본금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지만 공사기간을 2년 정도로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1차 생산과 2차생산(가공품), 그리고 판매(유통)가 분리되면서 전체적인 운영에 있어서 전문성을 기할 수 있다.

(3) 예상되는 어려움

첫째, 공동출자가 되기 때문에 출발부터 명확하게 주식회사의 형태로 출발하지 않으면 분배의 문제를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다.

둘째, 판매관련 인력의 확보와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셋째, 다량의 소비자 확보를 일시에 해낼 수 없다.

넷째, 계란공급이 급격히 줄어들어 A안에서 발생하는 피해보다 더 심한 피해를 소비자에게 줄 수



있다.

(4) 기대되는 성과

첫째, 양계업에 있어 직거래운동을 정착시킬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다(생활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둘째, 인력이 전문적으로 고도화되면서 전체적으로 보아 생산성의 향상은 물론 일반산업공장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수급이 원활해질 수 있다.

셋째, 보다 많은 소비자에게 좋은 상품을 공급한다.

넷째, 양계인의 단합심을 드높일 수 있다.

(5) 총괄

시작에 있어서 기동성은 떨어질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체 양계농가가 살아날 수 있는 모범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전체적인 농산물가격의 안정에도 지대한 공헌을 할 것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았을 때도 식량의 자급화에 기여할 수 있다.

2. 유통산업

양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넘기 힘든 벽이 바로 유통이 아닌가 생각된다. 결국은 그간의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에서 가공산업을 설명하면서도 조금은 언급이 되었지만, 이 문제는 넘지 못할 벽도 아니고 언제까지나 상인에게만 맡겨 놓을 수밖

에 없는 문제도 아니다. 가공산업을 전제로 한다면 반드시 이 부분에 손을 대야 하고, 또 그다지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A안과 B안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A안 : 개별농장단위

(1) 준비과정

공장의 가동 이전에 어느정도의 소비자 확보가 필요하다(설명회와 공장견학 등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직접 판매루트를 개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기본적인 물량을 계산하여 운송차량과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소비자는 회원제로 모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관리에도 수월하다. 따라서 회원모집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2) 실행

초보적인 단계이지만 분업이 가능하게 되고, 이를 뒷받침할 전문인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 소비자 회원과의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그때 그때 보완을 해 나가야 한다.

(3) 예상되는 어려움

첫째, 처음에는 소비자 회원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둘째, 한사람에 의해 모든 것이 집중 관리되므로 사업발전을 위한 노동자의 창의성이 발휘되기 어렵다.

셋째, 개별 사업자가 전과정을 다 투자해야 하므로 많은 자본의 지출이 불가피하다.

(4) 기대되는 성과

첫째, 상인과는 철저히 분리되므로 중간마진을 없애 1.의 A안 (4)의 첫째를 제대로 실현시킨다.

둘째, 인력의 전문화로 1.의 A안 (4)의 둘째의 효과를 본다.

셋째, 소비자에게 믿을 수 있는 상품을 공급하므로 1.의 A안 (4)의 셋째를 실현시킨다.

넷째, 타 농장에 자극을 주어 양계업계 전반에 걸친 확산효과를 볼 수 있다.

(5) 총괄

1.의 A안과 연동되어 전체적인 상품의 생산과 가공, 그리고 판매를 생산자가 직접 담당하게 된다. 이것은 그 간의 부당한 상거래질서에 경종을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산업자본에게 부당하게 빼앗겨온 부당이윤을 다시 찾을 수 있다.

B안 : 다수농장단위

(1) 준비과정

공장가동 이전에 소비자확보를 위한 조직적인 준비가 가능하다.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와 상품전시회 개최, 그리고 전문음식점의 개설 등을 통한 홍보와 소비자 조직화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판매 과정이 엄격하게 분리될 수 있고, 가정판매 뿐만 아니라 일반수퍼를 통한 공급도 가능하다.

여기에서 자본출자의 문제와 분배의 문제가 확실하게 매듭지어져야 한다.

(2) 실행

지역분할을 정확히 하여 원활한 물품공급에 만전을 기한다. 여기에서는 생산과 가공, 판매가 명확하게 분리되어 일의 효율성은 물론 자금관리의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각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3) 예상되는 어려움

첫째, 각 부분이 전문화되면서 유기적인 결합관계가 자칫 느슨해질 수 있다.

둘째, 개별농장의 사정(예, 수수의 증감)에 따라 전체적인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4) 기대되는 성과

첫째, 생활협동조합을 타 농산물과 합해서 만들어 1.의 B안 (4)의 첫째를 이룬다.

둘째, 인력이 전문화되면서 노동자의 창의성 발현은 물론 1.의 B안 (4)의 둘째를 실현시킨다.

셋째, 다량의 물량을 확보하므로 1.의 B안 (4)의 셋째를 실현시킨다.

넷째, 전 사업주의 통일을 피해 1의 B안 (4)의 넷째를 공고히 할 수 있다.

다섯째, 타 농산물의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5) 총괄

1.의 B안과 연동되어 전국적인 상거래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식량자급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울러 개별농장의 수입증대와 노동자의 고용의 증대로 국가전체적인 차원에서 부의 분배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초를 놓을 것이다.

Ⅲ. 실현방도

이상의 서술은 A안과 B안 모두 전체의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경영전반을 책임지고 담당할 관리 책임자 선정을 먼저하고 그로하여금 우리 실정을 참작하여 일본유학과 일본농장에서 그 전과정을 몸소 경험하게 한다. 그리고 이외의 전문인력은 국내에서 전문분야출신들로 보충한다.

이 글에서 서술되지 않은 계분의 비료화문제는 위 계획의 준비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제외시켰다.

경영관리인 수련기간을 약 2년으로 잡을 때 계사와 공장을 짓는 기간과 비슷하게 맞아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이 모든 계획의 실제적인 출발점을 올해 말부터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문제점 투성인 글이지만 문제제기 부분에서 밝혔듯이 현 양계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문제제기만이라도 된다면 본 문건은 그 목적을 다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아낌없는 비판을 부탁드립니다.